

##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개최... “체력·친목 다지는 시간되길”

### 남가주 백삼위한인본당

남가주 백삼위한인본당(주임 오창근 신부)은 5월 21일 성당 내 친교장에서 신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.

오창근 주임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“본당 교우들이 서로 한가족이 되는 이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력과 친목을 다지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”라고 말했다.

오 신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체육대회는 토렌스 동, 서, 남 구역

을 묶은 청팀과 토렌스 북, 하버-카슨, 팔로스 버디스 구역을 묶은 백팀이 화합을 위한 경기를 시작했다.

피구, 탕탕볼 타기, 굴렁쇠 굴리기, 축구, 발동 풍선 터뜨리기, 이어달리기,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그에 못지않은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최종 우승은 백팀이 차지했다.

모든 경기를 마친 후 신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행사장을 정리하고, 경기별로 준비된 상품과 쌀 한포씩을 받아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.

▶박 요아킴



5월 21일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신자들이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.